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로구 경복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후배들이 수능 대박을 응원 하고있다(위). 서울 서대문구 중앙여고 앞에서 한 학부모가 수험생 딸을 응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뉴스시스

## 올 수능, ‘불수능’인 지난해보다 평이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이 줄어든 54만8734명이 지원했다. 대입 역사상 가장 적은 학생 수다. 당초 지원한 인원 중에서는 10.14%가 시험장에 나오지 않았다. 재학생 지원자는 작년보다 5만4087명 감소한 39만4024명에 그쳤다. 재학생 지원자가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졸업생은 작년보다 6789명 늘어나 14만 2271명이 지원했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지난해 보다 쉽게,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 영역의 경우 현직 교사와 입시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고난도 문항은 22번·40번이 꼽힌다.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쉽고 올해 치러진 9월 모의 평가 보다 평이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작년 수능 31번 문항처럼 어려운 문항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현직 교사들의 평가다. 실제로 작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만점자가 148명(0.03%)에 불과했다. 신유형으로는 화법과 작문을 통합해 다룬 6번 문항, 문법영역에서 음운변동과 관련된 것을 묻는 13번, 그리고 문학영역의 32번 문항 등이다.

수학 영역 고난도 문항은 가·나·형 모두 20·21·29·30번 문항으로 분석됐다. 교사들은 수학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과 9월 두차례 진행된 모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난도 문항은 줄었지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전국 응시인원 55만명 ‘역대 최저’ 재학생 지원자 40만명 미만으로

중난도 문항이 늘어, 중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이 빠듯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만기 판공고 교사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문제풀이 시간에서 곤란을 겪었을 문제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신유형 문제로는 가형 17번·27번 문항 나형 21번·23번 문항이 꼽혔다.

수능 난이도는 해마다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어영역이 교사들도 정답을 맞추고 힘들 만큼 난이도가 높아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해마다 수능 난이도의 적절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관

련해 출제진은 검토위원들의 입소일을 하루 앞당겨 워크숍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8학년도와 2017학년도 수능도 ‘불수능’이었고, 2011학년도, 2009학년도, 2002학년도 수능은 어려웠다. 반면 2012학년도와 2001학년도 수능은 각각 만점자가 30명과 66명에 달할 정도로 쉬워 변별력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평가원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25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은 12월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EBS 연계율 70% 유지 초고난도 문항 없을 것”

심봉섭 출제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4일 “올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면서 “지난해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 1교시가 시작된 오전 8시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6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모의평가를 통해 지난해 이 같은 문항은 내지 않겠다는 기준을 유지했다”며 “수험생들의 배경 지식에 따른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 만한 소재와 지문을 찾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이 밝힌 출제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심봉섭 출제위원장이 출제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는 영역별로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출제했다.

올해 수능(1교시기준)에는 54만 5966명이 지원했으나 5만5414명(10.14%)이 시험장에 나오지 않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18일~22일까지 응시 수수료 60%를 환불 신청할 수 있다.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18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고, 평가원은 25일까지 이를 심사해 정답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hys@